



기후변화 대응, 고랭지 배추 품종 개발 방향 현장에서 찾는다

- 8월 24일 태백서 공동 연수·현장 평가회...민간·연구 기관 40여 명 참여
- 47품종·계통 비교, 더위 견딤성·병 저항성 강화 품종 육성 전략 집중 논의
- 재배 안정성과 수확기 현장 어려움 살펴

※ 일시·장소: 8. 24.(월) 13:00 ~ 17:00,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

기후변화로 여름철 고랭지 배추의 안정 생산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더위와 병에 강한 품종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태백)에서 ‘고랭지 배추 육종 연구 공동 연수(워크숍)와 현장 평가회’를 연다.

이 자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와 고원농업시험장이 공동 주관하며, 민간 종자회사의 배추 육종가, 중앙·지방 기관 연구자, 김치 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시험 재배 중인
더위에 강한 배추>

토론회에서는 배추 뿌리로 침입해 포기를 시들게 하는 ‘반쪽시들음병’ 저항성 잎채소 연구 동향을 점검하고, 미래형 육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수경재배 활용 배추 생산 기술 연구에 대한 발표도 진행한다.

이어서 고원농업시험장 시험 재배지에서 여름 배추 47점을 현장에서 평가한다. 더위에 강한(내서성) 품종과 주요 고랭지 재배 품종을 포함한 시판

품종, 농촌진흥청 육성 계통, 민간 시험 품종 등이다. 참석자들은 실제 고랭지 재배 환경에서 품종별 생육과 재배 안정성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학순 채소기초기반과장은 “고랭지는 여름철 배추 수급을 좌우하는 핵심 산지인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현장의 어려움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행사에서 논의하는 더위·병해충 저항성(내서·내병성) 유전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품종별 환경 스트레스 대응 결과를 관련 기관에 지속해서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 2026 고랭지 배추 육종연구 공동 연수, 현장 평가회(안)

담당 부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	책임자	과 장	최학순 (063-238-6600)
		담당자	연구사	김진희 (063-238-6621)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 목 적

- 고랭지 배추 품종 개발 방향과 수확기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품종별 성능 평가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의 배추 육종 전략 모색

□ 개 요

- 일 시: 2026. 8. 24.(월) 13:00~17:00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태백시 머리골길 108-38)
- 참석대상: 종자회사 배추 육종가, 유관기관 연구자 등
- 주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기초기반과/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

□ 주요내용

시 간	내 용	연 사	장 소
2026.8.24.(월) 13:00~13:20	등록, 자료 배부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
13:20~13:30	10' 개회, 인사		
13:30~14:30	60' ○ [세미나 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반쪽시들 음병 육종 연구 동향 보고,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김진희 연구사] ○ 질의응답		
14:30~15:30	60' ○ [세미나 2 : 엽근(잎)채소 내병성 육종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 세종대 박한용 교수] ○ 질의응답		
15:30~16:20	50' ○ [세미나 3 : 수경재배를 이용한 배추 미래 육종 방향 제언, 오뉴팜 원경일 대표] ○ 질의응답		
16:20~16:30	40' 휴식과 토의		
16:30~17:00	60' 고원농업시험장 내부 시험포장 안내 - 배추 내서성 품종, 고랭지 재배 주요 품종 노지 현장평가 진행		

□ 향후계획

- 내서·내병성 우수 유전자원에 대한 공동활용 확대 방안 검토
- 배추 품종별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성능 결과 공유